

장흥 '수소연료발전사업' 기대반 우려반

안전성 검증·재원 확보 등 주민 합의의 전제 사업 추진 여론 높아
군, 한국서부발전·아이티에너지와 업무협약 ...2023년 준공

'수소연료발전사업'을 두고 장흥군과 지역 주민의 대치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 검증과 재원 확보 등에 대한 합의와 공론화가 전제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흥군이 해당바이오산단에 추진하려는 수소연료발전사업과 관련 일부 주민들은 수소전기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로 안전성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만 키우는 꼴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장흥 수소연료발전사업이 200 MW 생산능력을 갖춘 지금까지 알려진 수소발전소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된 점을 감안해 유해성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 감축시키는 등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총 사업비 1조2000억원 가운데 사업주체인 한국서부발전측이 30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000억은 시행 회사측이 편당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자금을 확보해 추진하겠다는 것은 재무건정성 측면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서부발전과 투자협력 업체의 입장은 달라 의견집근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서부발전측은 "장흥수소연료발전사업은 '부생열이 없는 전기생산라인 불륨에너지시설(미구)로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적다는 장점을 지닌데다 수소는 이미 안전관리 노하우가 축적된 분야로 수소폭발 가능성 또한 희박해 안전성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다. 장흥수소연료발전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한 아이티에너지 김동석 대표도 "수소산업은 미래 신재생산업 가운데 현 정부 정책 사업으로 주도한 사업인 만큼 행정절차

(인·허가)가 마무리되면 투자회사들이 대단위 편당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사업비 조달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7만5213㎡(2만2000여평) 규모로 추진되는 장흥수소연료발전사업은 지난 4월 26일 전남도와 장흥군, 한국서부발전, 아이티에너지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7월 중 실시협약(MOA)을 거쳐 올해 안으로 관련부지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전남도)과 발전사업허가, 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산업통상자원부)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내년 6월에 착공,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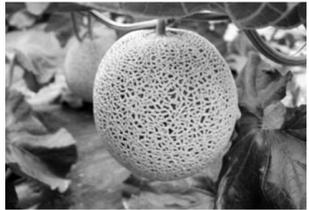


강진고려청자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

정부 공모사업 선정... 인건비 지원받아 관리체계 개선

장흥군 고려청자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두달간 소장품DB화 사업을 추진한다. 소장품DB화 사업은 전국 박물관의 소장품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선정된 박물관에 소장품 등록인력과 운영인력을 모집하고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등록인력은 인건비의 70%, 운영인력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총 사업비는 3100만원이다. 홈페이지(www.celadon.go.kr)에 6800점의 소장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는 고려청자박물관은 국가귀속문화재와 기증품, 강진 청자요지 출토품 등을 '표준유물 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김병관 고려청자박물관장은 "2017년에 고려청자박물관이 국가귀속문화재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매년 박물관으로 이관해 올 국가귀속문화재의 등록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공모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영암 멜론 본격 출하 식감·당도 높아 소비자 인기



부드러운 식감과 당도가 높은 영암멜론(사진)이 본격 출하됐다. 영암멜론은 풍부한 일조량과 최적의 생육조건에서 재배되고 있어 타 지역 멜론보다 당도가 높고 식감이 부드러워 국내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영암멜론은 도포면 시철하우스에서 52농가에 약 3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2월과 5월에 정식해 6월과 9월에 두 차례 수확한다. 올해 생산량은 960t으로 24억여원의 연간소득이 예상된다.



김철홍 익산국토청장과 정중순 장흥군수, 이승욱 강진군수 등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장흥군 정남진물과학관에서 탐진강유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장흥군·강진군·익산국토청 '탐진강 유역 협의회 구성' 협약

역사·문화·관광 어우러진 '생명의 강' 만든다

장흥군과 강진군, 익산국토청이 역사와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생명의 탐진강'을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장흥군과 강진군, 익산국토청은 지난 27일 장흥군 정남진물과학관에서 탐진강 유역 협의회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정중순 장흥군수, 이승욱 강진군수, 김철홍 익산국토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들은 탐진강을 역사와 문화, 관광을 어우르는 생명의 강으로 조성해 나가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탐진강유역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익산국토청은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 분야를 총괄 지원한다. 장흥군과 강진군은 탐진강 내 친수시설에 대한 공동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생태환경보전 및 역사와 문화, 관광 분야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탐진강을 역사, 문화, 관광을 어우르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 지역주민과 이용객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함께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군, 축산 폭염피해 예방 선제적 대응

영암군이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피해 경험과 올해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많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축산분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이번 폭염피해 예방 지원에는 축산농가

전체가 혜택을 받도록 대상과 품목 등을 확대해 지원하며 폭염피해 예방 사업이 7월 중 빠른 시일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도와 군의 예비 예산을 투입하여 폭염 피해 사전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는 방침이다. 폭염으로 인한 발육·번식 장애 등의 생산성 저하 예방을 위한 고온스트레스 예방제 등 10종의 약품 구입과 여름철 복사열로 인한 축사 내부의 온도 상승에 대비해 시원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기·냉난방 시설 등 시설·장비 구입을 지원한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장흥군, 농어민수당 60만원 확정

올 하반기부터 상품권 지급

장흥군은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 도입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장흥군은 최근 농어민수당 도입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비농업인단체를 포함, 농어민수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농어민수당 도입 및 지급에 따른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근 확정했다. 농어민수당 60만원은 장흥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대상자는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실직자하는 농·축·어·임업인이다. 올해 12월 하반기분 30만원을 첫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지급에 앞서 오는 9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10월경부터 신청을 받아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할 방침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농어민수당은 농어의 소득안정과 우리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며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그 효가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